

[보도자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국방, NGO 담당기자

발신: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강혜진 사무처장 010-6325-7731)

제목: 비상계엄 선포 위해 전쟁유도 외환죄, 윤석열 신속 파면하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헌법재판소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비상계엄 선포위해 전쟁유도 외환죄, 윤석열 신속 파면하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헌법재판소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안국역 6번 출구 인근
- ▲ 기자회견 진행 후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 전달
- ▲ 시민들의 한 줄 메시지를 받아 시민의견서에 첨부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취지

- 1) 윤석열이 구속기소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3일은 사전 지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증언과 증인,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의 치밀한 준비 과정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망언과 남탓, 극우세력들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2)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은 12월 3일 단 하루만에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 2024년 3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과 증거, 증언들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것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한 방법으로 '북한을 도발하여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산기 재개, 무인기 평양 침투에 이어 '대남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으려 한 것입니다.

- 3) 그러나 윤석열의 외환 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등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에서 외환죄를 삭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고, 결국 외환죄는 삭제되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의 공범자인 군 당국은 외환죄 관련 사항들은 '정상적인 군사행위'라며 외환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 인멸 행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함께 외환죄도 반드시 진상규명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 4) 이에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과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진행했습니다.

800여명의 시민들이 피청구인 윤석열과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한줄 시민 의견'을 포함해 연서명한 시민의견서는 이 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3.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비상계엄 선포위해 전쟁유도 외환죄,

윤석열 신속 파면하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헌법재판소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 사회 : 강혜진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사무처장

3) 순서 :

- 사회자 기자회견 취지해설
- 발언1 : 비상계엄 선포위해 끊임없이 전쟁 유도한 윤석열과 내란세력 규탄 (전지에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 발언2 : 외환죄 고발현황과 내란세력의 증거인멸 규탄! 수사 촉구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 시민의견서 낭독 (함형재, 신선애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대의원 및 회원)
- 헌법재판소 시민의견서 전달

4.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의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8인의 헌법재판관께

안녕하십니까. 평화주권평화행동 평화너머는 한반도의 평화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하루아침에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2.3내란 사태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풍공작을 지칭하는 다수의 메모가 발견되었고, 여러 정황과 증언,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연초부터 한반도와 접경지역의 충돌위기가 전쟁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근간에는 일부러 '전쟁'을 조장, 유도하려고 했던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북풍공작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 의혹입니다. 2024년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과거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충돌위기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군당국은 8월 포사격 훈련의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관련한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상원 수첩에도 역시 ‘오물풍선’이라는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원점 타격을 지시한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의 시기와도 가깝습니다. 합참의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일 실행에 옮겨졌다면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셋째, 10월 발생한 세 차례의 평양무인기 침투 사건입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10월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해 합참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무인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손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v의 지시’라는 드론작전사령부 부대원의 증언을 공개하였고, ‘v’는 VIP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속인 합참을 패스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직접 드론작전사령부를 움직이려고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동원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이 소요사태에 집중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일부러 시끄러운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하고 유도한 행위"로서 명백한 전쟁도발이자 외환죄(형법 제 99조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 즉 북한의 도발과 ‘전쟁상태’를 기획하고 유도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전쟁기획, ‘도발’에 대응했다면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니다.

내란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을 두고 ‘정상적인 군사행위’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지난 10월 ‘연천 무인기’ 발견 직후 정식 조사도 없이 무인기를 수거했고, 조사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추락한 ‘연천 무인기’를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김포와 백령도 지역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에서 자료삭제, 컴퓨터 포맷 등 증거인멸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외환죄 혐의를 수사, 처벌 대상에 올리는 것조차 집요하게 반대하며 내란특검법에서 ‘외환죄’를 제외시켰고,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도 아직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친위 쿠데타의 컨트롤 타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지만 북한의 도발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았다면, 제 2, 제 3의 계엄이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세력의 시도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될 수 있는 전쟁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은 외환, 전쟁의 혐의자입니다.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악용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내몰려한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외환죄로도 처벌해 역사적인 선례와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상황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윤석열의 외환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역사적 선례와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권력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실 신원식, 김태효 등 복풍을 조장하고 전쟁을 기획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외환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회원 및 시민

<발언문>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전지예입니다. 오늘 헌재가 사전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사안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북의 도발을 유도하는 전쟁 기획"입니다. 전시상태를 만들어 비상계엄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임기 고작 2년 반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우리가 봤던 윤석열의 호전적인 모습을 떠올려보십시오. 윤석열이 '선제타격, 즉강끝'과 같은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 당시 시민들은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시작부터 정권 위기에 처한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좋은(?) 상황'을 조성해왔습니다. 남쪽에서 날린 대북전단에 대한 북의 대응은 오물풍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북의

오물풍선을 향해 날아온 지점,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의 영토를 공격하라는 명령, 선제공격이자 전쟁 개시입니다. 합참의 반대로 무산되어 다행이지만, 실제 원점 타격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바로 전쟁입니다. 대북전단 막을 생각은 안하고,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며 9.19남북군사합의 파기하고 대북확성기 재개했습니다. 서해안에서 대규모 포사격훈련 실시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도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도발을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세 차례나 침투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의 지시였다는 드론작전사령부 부대원의 증언도 공개되었습니다. 707특임대도 오물풍선을 빌미로 한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엄이 끝나고 더이상 오물풍선 경고알림도 사라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다 척결하겠다는 윤석열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사실화하며, 부정선거도 다 종북 반국가세력의 행위라고 조작했을 것입니다. 극우세력들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것마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의 도발을 주도한 김태효와 신원식 등 내란세력, 전쟁세력들이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 내란세력은 윤석열의 외환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전쟁세력입니다. 극우세력이 왜 날뛰겠습니까.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다, 내란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조건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하고, 내란세력들도 파면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하마터면 전쟁까지 겪을 뻔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계엄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막아낸 것입니다. 윤석열이 아닌 권력을 가진 자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기획할 수 있다. 그러니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고 외환 행위에 가담했던 전쟁세력들을 처벌하고 뿌리뽑아야 합니다. -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전쟁을 기획했던 계엄시나리오는 다시 실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서 잠을 못잡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편에, 정의와 평화의 편에 서주십시오. 전쟁 유도한 외환죄, 윤석열 신속하게 파면해주십시오.

<현장사진>



발언. 전지에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발언.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시민의견서 낭독. 함형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대의원



시민의견서 낭독. 신선애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청년회원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러가는 대표단.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시민의견서를 접수하는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대표단.

